

시민 삶의 질 향상 위한 도시 녹지공간 조성

울산시 녹지공원과
2021. 4. 5.

인천시 녹지정책과
2021. 4. 30.

서울시 도시교통실 보행정책과
2021. 5. 6.

울산시, 도시숲 조성 정책 추진

울산시는 ‘2050 탄소중립도시’를 실현하고 기후위기에 보다 근본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도시숲 조성 정책을 집중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 전역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녹지정책을 통해 고농도 미세먼지를 저감해 나가면서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해 시민 삶의 질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산업단지 발생 미세먼지의 도심 유입을 막고 공단 내 근로환경을 개선하는 미세먼지 차단 숲 ▲도시 외곽의 공기를 도심으로 유입하는 연결 숲을 만들어 도시 열섬현상을 완화는 도시 바람길 숲 ▲학교 주변 산책로와 휴식공간을 마련하는 학교 숲 ▲어린이보호구역과 연계해 조성하는 자녀안심 그린 숲이 조성될 예정이다.

인천시, 석남녹지에 ‘탄소중립의 숲’ 조성

인천시가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선언한 가운데 온실가스를 정화하는 도시숲 확충을 본격화할 전망이다. 인천시는 서구 석남녹지에 ‘탄소 중립의 숲’을 조성할 예정으로, 4월 그 시작을 알리는 식수행사를 진행하였다. 탄소중립의 숲이 조성되는 석남녹지는 총사업비 1,200억 원이 투입된 폭 100m, 길이 2.4km, 총면적 23만 8,503m²의 완충녹지로서 지난 2004년부터 4단계에 걸쳐 조성이 추진돼 시민들의 여가 공간이자 도심의 허파 역할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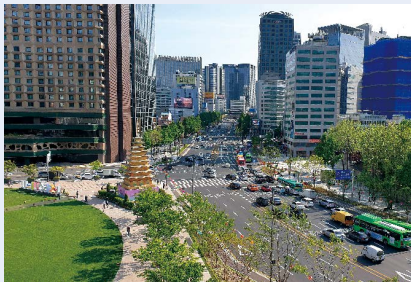
시는 이곳에 2022년까지 도시바람길 확산 숲과 미세먼지 차단 숲을 조성해 녹음을 더하는 등 지역주민과 미래세대를 위한 도시숲을 꾸준히 확충할 계획이다.

서울시, 세종대로 사람숲길 조성 완료

서울시가 세종대로 일대의 차로를 줄이고 걷고 싶은 가로숲길로 늘리는 ‘세종대로 사람숲길’ 조성사업을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사업을 통해 세종대로 일대는 기존 9~12차로를 7~9차로로 줄이고 보행로 폭을 최대 12m까지 확대하였으며, 전 구간에 자전거 도로가 새로 조성되었다. 시는 이번 사업이 지닌 가장 큰 의미는 단순히 차로만 축소된 것을 넘어 수목과 꽃으로 가득한 ‘도심 가로숲’ 개념을 최초로 도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녹색 테마숲과 다층식재 녹지대가 조성되었고, 청계광장이나 북창동처럼 나무를 심을 수 없는 곳에는 이동식·고정식 플랜터를 배치하는 방식으로 숲을 조성하였다.

조성이 완료되면서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들이 광화문광장·덕수궁·승례문 등 세종대로의 대표적 명소를 막힘없이 이동할 수 있게 되었다. 시는 앞으로 사람숲길 도보해설관광 코스를 신설하는 등 관광 콘텐츠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세종대로 사람숲길 조성 완료 후

출처: 서울시, (2021), 서울시, 1.55km ‘세종대로 사람숲길’ 완성... 가로숲길 녹음 즐기며 단절 없이 걷는다. 5월 6일 보도자료.